

지역 매 아리



고창서, 의무위반 예방 중간관리자 역할 강조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휴가철 들뜬 마음에 취해 일탈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관리자를 통한 건전한 여...

김세경 경무계장은 "직인 개개인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과 직장도 유지될 수 있다..."

박정환 서장은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자신의 불행은 물론이고 조직의 위상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휴가철 흐트러진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중간관리자들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읍성 주변 지중화사업 문화중심지 정착 '가속화'

고창읍성 앞길의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선 7기 '꽃피는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2일 고창군은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주변 문화중심지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전변남로(모양교~은하교) 구간 450m를 사업비 8억원(한전부담금 포함)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한전·KT·공기통신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빠른 시일내 완공해 공사중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도로정비 등이 마무리되면 고창읍성과 문화의전당, 교육지원청도서관 등을 잇는 길이 걷기 좋은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별별 최고를 찾아라!'

정읍 기네스 시민공모전 반응 뜨거워 최초 8시간 완창 고수·헌혈 최다 등 신청 잇달아

시민과 함께하는 2019 정읍 기네스 시민공모전의 반응이 뜨겁다. 시는 대한민국 최초 8시간 완창 고수와 고서 최다 보유, 헌혈 최다 등 기네스에 등재되기 위한 시민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 최대 크기 말굽버섯(7kg) 보유와 가장 오래된 가슴기 사용 등 이색적인 기네스 신청도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최초·최대·최다 등 일상 속의 기네스를 찾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응모 마감일까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정

읍과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기록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기록에도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해 공모전은 '별별 최고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정읍시민의 일상을 담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 대상은 인물과 문화예술, 산업경제, 건축물, 자연경관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기네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공동체관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정읍민의 상징성과 공감성, 객관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정읍 기네스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참가자에게 인증패와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당상작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읍 기네스북 책자로 발간, 시민들에게 정읍의 자랑거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정읍 기네스 인증과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정읍 기네스 신청과 심사·인증을 통한 기록물 관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 검진까지 무료로!

정읍시, 출산 지원 적극 추진

정읍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9세 미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98명인 1명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1명대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생을 저하로 말미암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임신부에게 B형간염과 빈혈, 간 기능 검사 등 무료 산전검사와 막달 검사를 실시하고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에드워드증후군과 다운증후군 등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임신부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부터 15주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신주수에 따른 철분제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을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후회복,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읍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시는 저소득층 영아(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의 건강관리 성장을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있다.

시는 임신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난임 부부의 행복한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 여성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한약 처방과

침구 치료(침, 뜸) 등 한방요법을 지원하여 임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내 지정 소아과와 치과에서 총 7회에 걸쳐 구강검진과 건강교육,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와 평가 등 전액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출산의 기쁨만큼이나 느끼게 된다는 경제적 부담감을 정읍시가 덜어주고 싶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은초록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초록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있다.

건강교실은 운동과 영양, 비만 등 관련 교육을 통해 어르신 개인의 건강습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정읍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7일에 걸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다.

보건소는 그동안 5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노래 교실, 웃음 치료, 스트레칭 등 다양한 프

그램을 펼쳤다. 오는 5일에는 덕천과 입암, 소성, 고부, 영원지역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백세시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웃음 치료 강의와 노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교실은 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539-6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생생문화재사업 '고슴도치의 사랑' 개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 부안군 생생문화재사업 '고슴도치의 사랑' 프로그램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부안군 위도면 위도관에서 열린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사학회 회원 및 일반인 22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밌는 법률판단을 조선시대 관아에서 사또가 풀어가는 사또의 명판결과 위도 파배를 만들고 소원을 적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파배 만들기 체험, 심청가 한 소절씩 따라해 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보소서! 심청이예요' 등이 진행된다.

또 위도와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바지락죽을 직접 만들어보는 이순신 아침밥상 차리기, 위도투어와 깻벌생태 체험, 위도의 바닷생물을 살펴보는 21세기 자산어보 등 다채롭

게 구성된다.

최연근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은 "위도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문화재청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기관표창을 받은 전국 유일 사업"이라며 "울해도 특색있는 체험을 통해 3년 연속 수상을 받고 문화재 활용사업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도판가는 우리나라에서 섬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관아로 심청이가 빠졌다는 전설이 있는 임수도왕가게를 지역어로 만들어 '고슴도치의 사랑' 프로그램은 관아에서 문화체험과 심청가 판소리를 듣고 배우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파배죽이의 파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소원피우기, 훼손되지 않은 위도의 자연유산 답사 등 차별화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프로그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 '앞장'

정읍시가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시설의 인접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비는 총 9천200만원(시비)으로 목표 401세대 중 현재 273세대에 대해 전기·가스 시설, 가스렌지, 보온단열재, 도배·장판 교체 등 300여 건의 시설을 점검 보수했다.

이에 화재나 범죄 위험이 감소 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가구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확보한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들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위기 가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인락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추운 겨울이 오기 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누락되는 대상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